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걱정수준 간의 관계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현 정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걱정수준 간의 관계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현 정

인 준 서

이현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어느새 논문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처음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고자 결심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졸업을 하면 다시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겠지요. 그 때의 설렘과 흥분, 그리고 두근거림이 떠오릅니다.

우선 논문을 지도해주신 채규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막힐 때마다 연구실로 가면 향기로운 커피를 손수 끓여주시며 지적과 조언을 해주셔서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용기를 가지고 논문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수경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학기에 예술치료강의를 들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까지 학교에 남아 함께 고민하고 서로 위로했던 우리 24기 동기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짜증 섞인 투정에도 늘 도와주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준 상하에게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은 학문을 넘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논문개요

본 연구는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28명이었으며, 부모-자녀 유대 질문지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상위인지 질문지 (Meta-Cognitions Questionnaire-30:MCQ-30), 펜실베니아 걱정증상 질문지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 PSWQ)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독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 자녀는 걱정을 많이 하고 허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 자녀는 걱정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상위인지가 걱정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상위인지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인지의 하위요인 중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인지적 자의식,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각기 부모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걱정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가장 많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양육 태도가 돌봄이 적고 과보호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걱정이 많으며,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적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걱정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부모 양육 태도를 독재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걱정에 대한 상위인지 신념들을 수정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걱정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성인기 범불안장애로의 발전 예방을 위해

걱정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수정할 수 있는 치료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 양육 태도, 상위인지, 걱정, 매개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

(1) 부모 양육 태도	5
--------------------	---

(2) 걱정	8
--------------	---

(3)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11
------------------------------------	----

2. 상위인지와 걱정

(1) 상위인지	13
----------------	----

(2) 상위인지와 걱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15
--------------------------------	----

3. 연구 문제 및 가설	17
---------------------	----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18
----------------	----

2. 연구대상	19
---------------	----

3. 측정도구

1) 부모-자녀 유대 질문지	20
-----------------------	----

2) 상위인지 질문지	22
-------------------	----

3) 펜실베니아 걱정증상 질문지	24
-------------------------	----

4.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25
-----------------	----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6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26
2.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	29
3.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29
1)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30
①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의 매개효과	31
②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	32
③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	34
2)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35
①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의 매개효과	36
②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	37
③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	38

V. 논의

..... 40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2> 부모-자녀 유대 질문지의 구성내용	20
<표 3>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 분포	21
<표 4> 상위인지 척도의 구성내용	23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6
<표 6> 양육유형, 상위인지, 걱정의 상관관계	28
<표 7> 지각된 부모 양육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29
<표 8>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31
<표 9>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의 매개효과	32
<표 10>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	33
<표 11>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	35
<표 12>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36

<표 13>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에 대한 매개효과	37
<표 14>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	38
<표 15>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	39

그림 목 차

<그림 1> Paker의 양육 태도 유형 분류	8
<그림 2> 범불안장애와 걱정의 상위인지 모델	14
<그림 3> 부모 양육 태도, 상위인지, 걱정의 매개모형	1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걱정(worry)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과정이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러한 걱정이 지나치게 많고 이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걱정은 불안장애의 한 하위 유형인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의 핵심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걱정이 보편적인 심리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 연구는 1980년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Borkovec 등, 1999). 걱정과 범불안장애는, 범불안장애가 다른 불안장애들에 비해 뒤늦게 체계적인 진단분류 체계에 포함되었으며, 범불안장애의 핵심진단기준인 걱정이 정상인들도 빈번하게 경험하는 보편적 인지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지나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불안장애로 전환될 수 있음이 제시되면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몇몇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에서도 지속적이고 과도한 걱정을 경험한다고 보고되면서(Orton, 1982; Brown, O'keeffe, Sanders & Baker, 1986)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걱정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25%가 과도하고 통제불가능한 걱정을 보고하고 있다고 제시한다(Fournier, Freeston, Ladouceur, Dugas, & Guevin, 1996). 청소년기는 무수히 많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이런 모든 변화들이 걱정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크게 발달하는 시기 인만큼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게 되는 한편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할 가능성은 증가될

수 있다(Vasey, 1993). 특히 성인기에 와서 범불안장애로 진단을 받은 경우, 그들은 대부분 아동기부터 오래 지속된 불안에 대한 민감성과 함께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적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강은희, 정은의, 2003). 또한 걱정 수준이 높은 성인들은 청소년 후기부터 과도한 걱정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Fournier et al., 1996). 이와 같이 과도한 걱정은 아동기부터 지속되며, 청소년기에 병리적인 발달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걱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의 걱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범불안장애의 근간이 되는 걱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걱정에 대한 기제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많은 연구들은 병리적인 걱정과 범불안장애의 병인과 발달에 있어 인지적 이론의 맥락에서 접근해왔다. 범불안장애와 걱정에 대한 Wells(1994)의 상위인지 모델에 따르면, 잘못된 상위인지와 상위인지 신념이 걱정의 발달에 기여한다. Wells(1994)는 걱정을 1유형, 2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유형 걱정은 실제 외부 사건과 내부 사건에 대한 걱정이며, 2유형 걱정은 걱정 그 자체에 대한 걱정, 즉 걱정이 발생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의 인지적인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특히 걱정의 발생과 관련된다. Wells(1994)는 범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사람과 정상인의 경우 1유형 걱정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2유형의 상위걱정이 발달하면서 문제시된다고 보았다. 2유형 걱정이 활성화되면 불안이 증가하게 되고, 불안이 증가하면 걱정을 그만해도 괜찮겠다는 내적인 상태가 되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 걱정이 만성화 되는 것이다. 일단 부정적인 신념과 상위걱정이 수립되면 사람들은 걱정의 억제나 회피를 통해 병리적인 걱정에 대한 걱정을 피하려하는데, 결국 범불안장애 환자들은 대처방안으로서 걱정을 하게 되며, 이럴 경우 걱정과정과 관련된 두려움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였다. 병리적 걱정은 1유형 걱정과 2유형 걱정

모두와 상관이 있지만, 2유형 걱정이 걱정의 증가와 일반화 및 병리화에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걱정을 부모 양육 태도와 관련시키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대인관계인 동시에,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송기현,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병리적인 걱정을 하게 되는 기제 역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몇몇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Muris et al.2000).

이처럼, 상위인지와 걱정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으나, 왜곡된 상위인지 신념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Gallagher, Cartwright-Hatton (2008)는 비임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잉반응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걱정에 대한 역기능적인 상위인지 신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과잉반응적인 양육 태도란, 가혹하고 처벌적이며 일관성 없는 훈육방식을 말한다(Arnold et al., 1993). 부모 양육 태도가 왜곡된 인지 및 심리도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미루어 보아 부정적인 부모 양육 태도는 역기능적인 상위인지 신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병리적 걱정과의 관계에서 상위인지가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와 병리적인 걱정이 관련되고, 부모 양육 태도와 상위인지가 관련되며, 상위인지가 병리적인 걱정을 발달시킨다는 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병리적인 걱정 발달에 있어서 상위인지의 역할

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그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의 병리적인 걱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임상적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

(1) 부모 양육 태도

일반적으로 시대나 문화를 막론하고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며 사회화 시키는 일차적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어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나 부모는 자녀의 발달 초기부터 자녀와 특별한 유대감을 발달시키고 양육 태도를 통해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정하, 2003). 또한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최초의 학습장소가 되고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적 세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송기현, 2005)

양육 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말하며 자녀의 사회, 정서적 행동의 특성은 부모 및 양육자가 자녀를 어떤 태도로 키웠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의와 유형을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학자인 Symonds(1949)는 비정상인 부모와 자녀관계를 거부-보호, 지배-복종을 양극으로 하는 두 개의 요인 축에 의해 2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2개 차원에서 다시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보호는 간섭형과 불안형, 복종은 복종형과 익애형, 거부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분류하였다.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권위 있는(authoritative)부모, 권위

적인(authoritarian)부모, 허용적(permissive) 부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문제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격려하며 부모가 취하는 방식에 대해 자녀의 이해를 구하며,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에도 강요하지 않는 부모이다. 권위적인 부모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기준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유도하고 통제하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충되는 경우, 자녀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강력한 수단과 처벌을 사용하는 부모이다.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의 충동이나 욕구 및 행동에 대하여 처벌을 가하지 않으며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려고 애쓰는 부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Schaefer(1959)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두 개의 축, 즉 애정-거부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으로 분류하여 장기적으로 연구한 학자이다. Schaefer의 가설적 모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두 축을 근거로 한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자율적인 양육 태도 : 애정적이며 동시에 자율을 허용하는 가장 권고할 만한 부모의 양육 태도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 허용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의 부모는 자녀에게 늘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복종과 통제를 피하며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 하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창의적인 태도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Sears, 1961; Becker, 1964)

둘째, 애정-통제적인 양육 태도 :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로서, 이러한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을 습득할 기회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애정적이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보다 더 의존적이고 사교성, 창의성도 적은편이며 불안정한 정서를 갖게 된다

(Kagan & Moss, 1962).

셋째, 거부-자율적인 양육 태도 :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로써, 거리감 조성, 무관심, 태만, 냉담한 성격의 태도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는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 조절을 못하여 불안정한 정서와 움츠러드는 행동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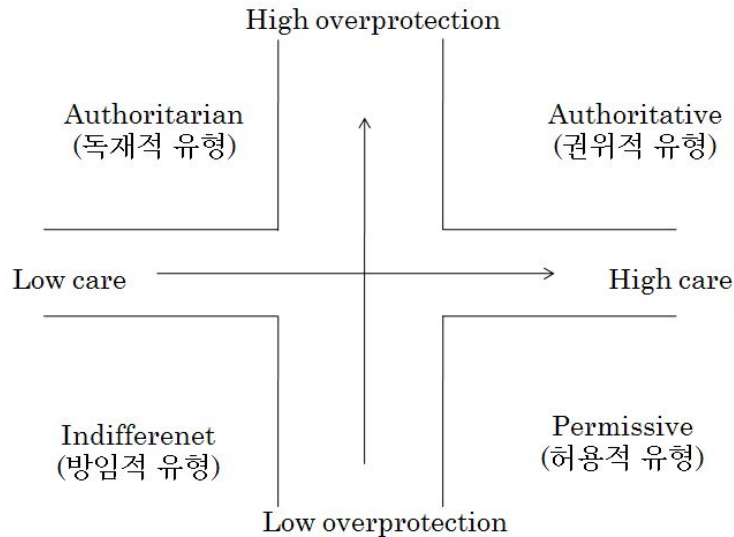
넷째, 거부-통제적인 태도 :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독재형의 양육 태도로서, 자녀로 하여금 감정표현 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 시킨다.

결국 부모의 수용적, 애정적, 민주적인 양육방식에 의해 양육된 자녀의 행동은 사회성이 높고 바람직하며, 정서적인 안정성을 나타내지만, 반면에 거부적, 지배적,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반항적, 공격적, 의존적인 행동과 적응곤란 내지는 정서 불안을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Maccoby와 Martin(1983)은 Baumrind와 Schaefer의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 결합시킬 것을 제안하였는데, Schaefer의 애정-거부 및 자율-통제의 차원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부모 양육 태도를 제시하였다. 첫째,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최소한의 통제를 가하나 어느 정도의 애정을 표시한다. 둘째, 허용적인 부모는 통제와 애정을 잘 조화시킨다. 셋째, 독재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매우 통제적이며 적의를 나타낸다. 넷째, 방임적인 부모는 자녀를 귀찮고 짐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며 자녀에게 거의 무관심하다.

Parker(1979)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돌봄(care)” 차원과 “과보호(overprotection)”차원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애정 있는 통제”(affectionate constraint= 높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 “애정 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높은 과보호와 낮은 통제), “최적의 유대”(optimal bonding=높은 애정과 낮은 과보호), “부재하거나 약한 유대”(absent or weak bonding=낮은 애정과 낮은 과보호)와 같이 4유형의 이름으로 분류하였다

(Parker, 1979). 각 분류의 하위요인특성은 애정-자율요인을 바람직한 유형으로 제시한 Schaefer의 유형과 같다. 또한, 주은선(2000)은 각 유형을 Maccoby와 Martin(1983)의 유형 분류에 따라 권위적 유형, 독재적 유형, 허용적 유형, 방임적 유형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림 1. Paker의 양육 태도 유형 분류>

Paker 등(1979)에 의하면 사랑과 공감-냉정과 무관심의 온정(돌봄)차원과 과보호와 간섭-독립 자율성과 격려의 통제(과보호)의 2개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차원은 결합 형태는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의 형태(허용적 유형)이다.

(2) 걱정

사람들은 누구나 걱정을 한다.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할 때에는 부정적인

것들-미래에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부정적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걱정은 신체적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해주며, 부정적인 사건을 회피하도록 해주거나 최악의 상황에 대해 준비시켜주기도 한다. 또한 보다 정서적인 부담이 큰 위협적인 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Borkovec 등(1983)은 걱정을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며, 비교적 통제가 불가능한 사고와 심상의 연쇄’라고 정의하였다. 걱정과정은 결과가 불확실하지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Davey(1994)는 걱정을 ‘미래에 일어날 외상적인 사상을 막고, 외상적인 사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인 문제해결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정의는 걱정이 대부분의 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과정이며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불안함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의 주장과는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유성진, 2000). Davey(1994)는 문제해결적 속성을 가진 정상적 걱정이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상황특성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면, 인지적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것이 병리적 걱정으로 발전, 지속된다고 제안하였다.

Wells(1994)는 걱정을 ‘위협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선택되는 대처행동’으로 개념화하면서, 걱정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상위인지(meta-cognition) 또는 상위걱정(meta-worry)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상위걱정에 의해 걱정과 관련된 신념들이 활성화되고 대처행동으로서의 걱정하기가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걱정에 대한 여러 정의를 살펴보면, 걱정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그 자체를 병리적이고 중요한 임상적 현상의 하나로 보는 관점이고, 하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문제해결적 대처전략으로 보는 관점이다(Hunt, Wisocki & Yanko, 2002).

이러한 걱정의 두 가지 정의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정상적인 걱정과 병리적인 걱정이 단일 차원을 따라 존재한다는 주장(Rusio, Borkovec, & Ruscio,

2001)이 제기되었지만, 걱정의 반대되는 두 측면이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인지 혹은 단일한 기저 과정의 상이한 표현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므로(조숙현, 2002), 걱정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걱정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므로 Borkovec 등(1983)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걱정을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며, 상대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일련의 사고와 심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성인의 걱정에 대한 연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청소년의 걱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Vasey, 1993). 청소년의 걱정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25%가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보고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Fournier, Freeston, Ladouceur, Dugas, & Guevin, 1996). 걱정 수준이 높은 성인들은 청소년 후기부터 과도한 걱정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는데(Fournier et al., 1996),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사건을 상상하고, 기대하거나 개념화하며, 점차 파국적 사고가 정교해진다. 이러한 인지적 발달은 어린 아동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아동기 중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러 형식적 조작의 사고 능력이 획득되며 정교화, 추상화된다. 청소년기는 인지 능력에 있어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발달양상을 보인다.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체적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연역적 또는 가설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 제한은 현재에 제한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로 확장되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사고가 현실적 구속을 벗어나 가능성의 세계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과도한 걱정의 증가에 대해 발달적 관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기의 인지 능력의 증가와 획득은 청소년의 걱정을 일반화시킬 것이라고 가정된다(Vasey, 1993).

둘째, 청소년기는 무수히 많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이런 모든 변화들이 걱정을 유발할 수 있다. 걱정은 부정적 스트레

스(distress)의 전조라고 할 수 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로 대변되는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종종 간과되어 왔다. 걱정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반영한다. 청소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1) 부모와의 갈등 (2) 정서적 어려움 (3) 위험 행동(Arnett, 1999). 특히, 청소년기에 걱정이 증가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혼란 및 부정적 정서의 증가와 관련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Cole, Lachlan, Martin, Truglio, & Seroczynski, 1998).

요컨대, 청소년의 인지 발달은 미래의 사건에 관한 위협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하기도 하지만,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Vasey, 1993). 또한 청소년기는 경험해 보지 못한 무수히 많은 사건들에 자주 직면하는 시기이므로(Arnett, 1999),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수많은 변화들은 병리적인 걱정을 유발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다.

(3)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걱정과 부모의 양육 태도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 중 상당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 부모의 양육 행동을 보고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Muris et al.(2000)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는데,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 태도가 걱정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아버지의 불안한 양육 태도와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걱정수준과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불안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Brown, Whiteside(2008)의 연구에서는, 각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걱정수준간의 관계에서 거부적인 부모 양육 태도가 아동의 높은 수준의 걱정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걱정하고 과잉보호하는 양육 태도도 아동의 걱정수준과 상대적으로 작지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관관계는 불안과 거부적인 부모 양육 태도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Gruner et al., 1999; Moore et al., 2004; Alonso et al., 2004)과 일치하고, 과잉보호적인 양육 태도와 불안간의 선행연구(Bogels & van Melick, 2004; Alonso et al., 2004)와 일치하지만, 과잉보호적인 부모 양육 태도가 근소하게 상관을 보인 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걱정수준이 높은 아동은 과잉보호적이고 걱정이 많은 양육 태도와 관련되며, 거부적인 양육 태도와도 높게 관련된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의 걱정수준과 애착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양가적 애착만이 아동의 걱정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밝혀냈다. 부모와 양가적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부모의 정서적인 따뜻함을 적게 보고했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양육 태도를 많이 보고하였는데, 이는 낮은 애정과 높은 과잉보호의 부모 양육 태도와 자녀의 과도한 걱정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Chorpita와 Barlow(1998)는 불안의 발달 모델에서 비일관적인 훈육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Chorpita와 Barlow는 비일관적인 양육은 지배력과 통제력을 감소시켜 아동이 부모로부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아동은 자신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지각하게 되며, 아동이 그들 자신과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즉, 가혹하고 비일관적인 훈육방식은 높은 걱정 수준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인 여러 연구 등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부모의 거부적이며 불안하고 비일관적, 과잉보호적인 양육 태도가 걱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2. 상위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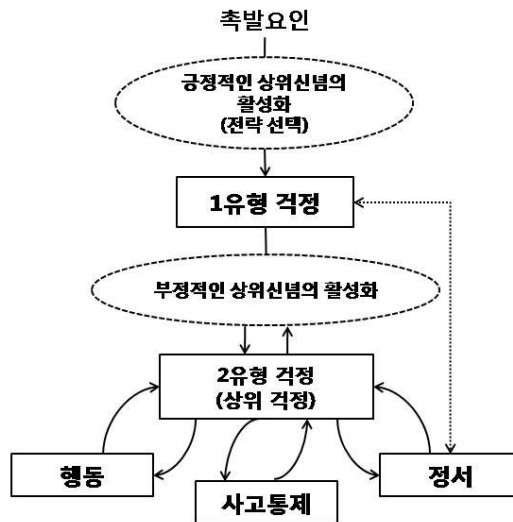
(1) 상위인지

상위인지는 “인지를 평가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인지적 과정(Flavell, 1979)”으로 정의된다. 최근 인지행동치료의 영역에서 정서행동문제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서 상위인지에 대한 관찰이 고조되고 있으며 내면화, 외현화 문제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걱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상위인지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상위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상위인지에 대한 연구는 Wells(1995, 1997)가 범불안장애에 대한 상위인지 모델(meta-cognitive model)을 제안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Wells(1995, 1997)에 따르면 문제적 걱정하기(worrying)를 보이는 사람들은 걱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신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걱정하기를 통제방략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반면에, 부정적 신념은 걱정 그 자체가 부정평가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기 활동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 결과 걱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오히려 병리적 걱정이 유지, 발전된다. Wells(1995)는 걱정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1유형 걱정은 실제 외부 사건과 내부 사건에 대한 걱정이며, 2유형 걱정은 걱정 그 자체에 대한 걱정, 즉 걱정이 발생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의 인지적인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특히 걱정의 발생과 관련된다. 1유형 걱정은 상황이 위협적일 수 있는 것으로 지각될 때 발생하며, 이것은 개인이 걱정을 문제해결이나 대처 전략으로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상위인지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과도한 걱정은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지각된다. 나아가 자주 일어나는 걱정과 사회적 학습에 대한 외부적 정보는 유형1 걱정에 대한 부정적 상위신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유형2 걱정을 촉발시킨다. 이 유형2 걱정은 걱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며 범불안장애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Wells(1999)는 범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사람과 정상인의 경우 1유형 걱정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2유형의 상위걱정이 발달하면서 문제시된다고 보았다. 2유형 걱정이 활성화되면 불안이 증가하게 되고, 불안이 증가하면 걱정을 그만해도 괜찮겠다는 내적인 안정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걱정이 만성화되는 것이다. 일단 걱정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수립되면 사람들은 걱정의 억제나 회피를 통해 병리적인 걱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려 한다. 결국 범불안장애 환자들은 대처방안으로서 걱정을 하게 되며, 이럴 경우 걱정과정과 관련된 두려움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였다. 병리적 걱정은 1유형 걱정과 2유형 걱정 모두와 상관이 있지만, 2유형 걱정이 걱정의 증가와 일반화 및 병리화에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그림 2. 범불안장애와 걱정의 상위인지 모델, Wells(1995)>

(2) 상위인지와 걱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위인지와 걱정에 대한 연구는 걱정을 핵심 증상으로 하는 범불안장애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Borkovec, Hazlett-Stevens와 Diaz(1999)는 임상적 관찰과 실험 연구들로부터 범불안장애 환자들이 걱정하기가 유용하다는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발달되고 유지되는 매커니즘은 걱정하기 이후에 종종 실제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간의 미신적인 연합이 학습되며, 또한 걱정하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신체적 증상의 불안 경험이 억압되는 부적 강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에 걱정과 침투사고의 상위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들도 다수 개발되었다. Davey 등(1996)은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을 측정하는 걱정관련신념 척도(Consequences of Worrying Scale: COWS)를 개발하였으며, 긍정적 신념이 걱정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부정적 신념은 걱정증상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증상 질문지, 불안/우울과 관련된 부정적 자동적 사고빈도 질문지 등 더 많은 정신 병리 측정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임을 밝혔다. Cartwright-Hatton과 Wells(1997)는 상위인지 질문지(Meta-cognitions Questionnaire : MCQ)를 개발하고, 걱정과 침투사고에 대한 5개의 상위인지 차원인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인지적 자신감 부족, 미신/ 처벌/ 책임감에 대한 주제를 포함하는 전반적 사고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인지적 자의식'을 제안하였다. 이 때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인지적 자신감 부족 차원은 특질 불안과 독립적으로 걱정증상을 예언하였다.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걱정증상이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Davis & Valentiner, 2000;

Wells & Cartwright-Hatton, in press; Wells & Papageorgiou, 1998).

상위인지는 또한 강박장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강박장애와 관련된 상위인지 연구 결과 인지적 자신감 부족, 인지적 자의식, 사고통제의 중요성 등의 상위인지가 중요한 차원으로 논의(Cartwright-Hatton & Wells, 1997)되었다. 따라서 걱정은 상위인지의 모든 하위요인과 관련되나,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통제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걱정 증상을 예측해주는 독특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의 연구문제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이 청소년의 자녀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설 1. 부모 양육 태도 유형은 청소년 자녀의 걱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 양육 태도 유형과 청소년의 걱정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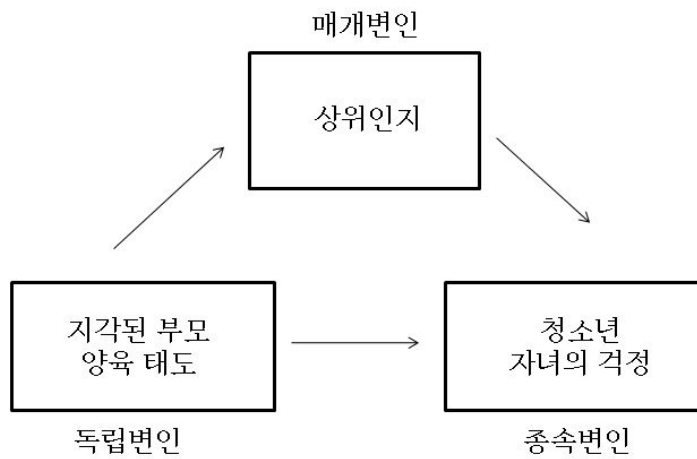
가설 2. 부모 양육 태도 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걱정의 관계에서 상위인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걱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상위인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부모 양육 태도, 상위인지, 걱정의 매개모형

2.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430명을 대상으로 각 학급의 자율학습 시간에 담임선생님의 감독 하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03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75부를 제외한 328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 학년, 어린 시절 주 양육자를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총 328명 중 남학생은 166명(50.6%), 여학생은 162명(49.4%)을 차지하였다. 자세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328)	%
성별	남	166	50.6
	여	162	49.4
학년	고1	236	72
	고2	42	12.8
	고3	50	15.2
어린 시절 주 양육자	친부모	301	91.8
	친모	4	1.2
	친부	1	.3
	친모와 계부	2	.6
	친부와 계모	1	.3
	기타	19	5.8

3. 측정도구

1) 부모-자녀 유대 질문지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나타내는 한국판 PBI를 사용하였다. Parker, Tupling & Brown(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개정된 문항을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16세 이전까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대해 묻는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의 질문이며, 4점 척도로 평정한다. 25문항 중 돌봄 척도(care scale) 12문항, 과보호 척도(overprotection scale)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봄 척도는 온정(다정성-냉정성)에 관한 것으로 온화함과 애정, 이와 대조되는 무관심과 무시와 관련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수준이 높은 것이다. 과보호 차원은 부모의 통제, 간섭, 과잉보호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격려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통제적이고 침입적, 과보호적임을 의미한다.

한국판 PBI의 내적 신뢰도는 어머니 과보호와 돌봄이 .87, .87 그리고 아버지 과보호와 돌봄이 .88,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어머니 과보호와 돌봄이 .83, .88, 아버지 과보호와 돌봄이 .84, .91 이었다. 부모-자녀 유대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자녀 유대 질문지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과보호	3*,7*,8*,9,10,13,15*,19,20,21*,22*,23,25*	13
돌봄	1,2,4*,5,6,11,12,14,16*,17,18,24	12
전체	25문항	

*는 역문항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후 Parker 등(1979)의 방법을 사용해 돌봄과 과보호를 온정과 통제 차원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Maccoby & Martin의 4유형의 이름으로 분류하였다. 돌봄(온정)이 높고 과보호(통제)가 높으면 권위적 유형, 돌봄(온정)이 높고 과보호(통제)가 낮으면 허용적 유형, 돌봄 과보호가 둘 다 낮으면 방임형 유형, 돌봄이 낮고 과보호가 높으면 독재적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군 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군간 연결부위에 속한 피검자들을 Parker등(1979)의 방법을 사용해 기각시켰으며, 부모 양육 태도 유형의 비율분포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 분포>

양육 태도유형	빈도(247)	%
권위적 유형	23	9.3
허용적 유형	99	40.1
방임적 유형	32	13.0
독재적 유형	93	37.7

여기서 부모 양육 태도 각 유형은 아버지 돌봄과 어머니 돌봄을 합쳐서 부모 돌봄으로, 아버지 과보호와 어머니 과보호를 합쳐서 부모 과보호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모 양육 태도가 자녀의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모의 양육 행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요즘 들어 기존 연구와 상반되게 부의 양육 태도가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에 대해 더 잘 예언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이창수, 1998; Park et al., 1997; Verschueren & Marcoen, 1999). 이에 대해, 부모 중 어느 쪽이 크든 간에 돌봄의 합이 크면 자녀의 정서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전체 과보호 합이 크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이은희, 1999)가 제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 아버지 변인과 어머니 변인을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상위인지 질문지 (Meta-Cognitions Questionnaire-30:MCQ-30)

걱정, 침투사고 및 인지 기능에 대한 신념과 사고과정을 검열하는 경향의 개인차를 평가하는 69문항으로 구성된 원판 상위인지 질문지의 실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Wells(2004)가 새롭게 30문항으로 단축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4(매우 동의한다)까지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질문지는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된다; 인지적 자신감 부족(lack of cognitive confidence),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positive beliefs of worry:), 인지적 자의식(cognitive self-consciousness),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negative beliefs about uncontrollability of thoughts and danger),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need to control thoughts)인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예: 걱정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피하게 해준다)은 걱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걱정의 유용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자신감 부족(예: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적 영역에 있어서의 역량 지각을 의미한다.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예: 나는 걱정 때문에 넋더리가 난다)은 걱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을 말하며, 걱정 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포함한다. 인지적 자의식(예: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은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예: 어떤 사고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처벌받을 것이다)는 자신의 사고를 통제하고자 하는 신념을 말한다

(Cartwright-Hatton & Wells, 1997).

각 요인 당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판 MCQ-30의 Cronbach's alpha는 .72에서 .93으로 양호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9에서 .9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순호(2004)가 우리나라말로 번안한 한국판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이며 하위 요인인 인지적 자신감 부족, 걱정애 대한 긍정적 신념, 인지적 자의식,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0, .80, .78, .81, .78 이었다.

상위인지 척도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상위인지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인지적 자신감 부족	8,13,16,25,27,30	6
걱정애 대한 긍정적 신념	1,6,9,18,22,24	6
인지적 자의식	3,5,11,15,17,29	6
사고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2,4,10,14,20,21	6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7,12,19,23,26,28	6
전체	30문항	

3) 펜실베이니아 걱정증상 질문지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 PSWQ)

Meyer, Miller, Metzger와 Borkovec(1990)이 제작한 검사로 김정원, 민병배(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걱정에 대한 일련의 진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해 자신에게 적합한 정도를 5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 이 척도는 높은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91)를 보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r=.81$) 뿐 아니라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eyer et al., 1990).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 이었다.

4.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6.0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각 척도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값으로 산출하였다.
-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각 변인(부모 양육 태도, 상위인지, 걱정)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부모 양육 태도 유형이 청소년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부모 양육 태도 유형이 청소년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인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1)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부모 양육 태도에 따른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유형	인지적 자신감 부족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인지적 자의식	사고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전체 상위인지	걱정
권위적	12.04 (3.13)	12.04 (4.68)	15.28 (4.20)	12.82 (3.63)	12.12 (3.63)	65.13 (17.08)	51.77 (11.63)
허용적	10.48 (3.63)	12.80 (3.50)	15.10 (3.96)	11.51 (3.91)	11.03 (3.81)	60.92 (12.73)	45.35 (13.65)
방임적	10.64 (3.14)	12.84 (3.79)	15.22 (3.99)	11.87 (2.71)	11.80 (2.71)	62.38 (9.07)	47.09 (11.23)
독재적	12.39 (4.15)	12.90 (3.92)	14.56 (3.69)	14.56 (3.69)	13.36 (4.15)	66.25 (14.79)	50.37 (11.77)

(2) 주요 변인간의 상관

부모 양육 태도 유형, 상위인지 각 하위요인, 걱정 각 변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재적 유형의 양육 태도는 상위인지 하위요인 중 인지적 자신감 부족 ($r=.208, p<.01$), 사고통제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r=.193, p<.01$),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r=.204, p<.01$) 그리고 전체 상위인지 ($r=.155, p<.05$)와 걱정($r=.142,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허용적 유형의 양육 태도는 상위인지 하위요인 중 인지적 자신감 부족($r=-.189, p<.01$), 사고통제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 ($r=-.178, p<.01$),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r=-.195, p<.01$)과 전체 상위인지($r=-.154, p<.01$), 걱정($r=-.176, p<.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양육유형, 상위인지, 걱정의 상관관계

	권위적 (높은 돌봄 & 높은 과보호)	허용적 (높은 돌봄 & 낮은 과보호)	방입적 (낮은 돌봄 & 낮은 과보호)	독재적 (낮은 돌봄 & 높은 과보호)	인지적 자신감 부족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인지적 자의식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전체 상위인지	걱정
권위적	1										
허용적	-.262(**)	1									
방입적	-.124	-.316(**)	1								
독재적	-.249(**)	-.636(**)	-.300(**)	1							
인지적 자신감 부족	.057	-.189(**)	-.073	.208(**)	1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002	-.010	-.001	.009	.133(*)	1					
인지적 자의식	.029	.036	.029	-.074	.124	.440(**)	1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035	-.178(**)	-.048	.193(**)	.411(**)	.266(**)	.404(**)	1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010	-.195(**)	-.018	.204(**)	.365(**)	.457(**)	.482(**)	.578(**)	1		
전체 상위인지	.038	-.154(*)	-.032	.155(*)	.576(**)	.649(**)	.697(**)	.762(**)	.826(**)	1	
걱정	.094	-.176(**)	-.030	.142(*)	.320(**)	.266(**)	.360(**)	.745(**)	.485(**)	.623(**)	1

** $p < .01$, * $p < .05$

2.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걱정애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걱정애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 양육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 자녀의 걱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재적 양육유형($F=5.032, p<.05$)과 허용적 양육유형($F=7.795, p<.01$) 모두 청소년 자녀의 걱정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표 7> 지각된 부모 양육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걱정애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 변인	R^2	F	β
독재적 양육 유형	.020	5.032*	3.702*
허용적 양육 유형	.176	7.795**	-.176**

** $p<.01$, * $p<.05$

3.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부모 양육 태도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걱정애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위인지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hierarchical)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Baron & Kenny, 1996)을 만족 시켜야 한다. (1) 독립변인은 가정된 매개변인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경로 a). (2)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경로 c').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에서 ①매개변인과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경로 b, c), ②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 줄어든다($c' > c$).

이 때 세 번째 회귀식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두 번째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의 회귀계수보다 감소하면서, 회귀계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완전매개 효과(perfect mediation)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회귀식에서의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두 번째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의 회귀계수보다 감소는 하지만, 회귀계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부분매개 효과(partial mediation)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 매개효과에 대한 직접 검증을 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유의도 검증을 하였다.

1)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6 참고>를 살펴본 결과 독재적 양육 태도와 전체 상위인지, 걱정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독재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독재적 양육 태도를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상위인지의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독재적 양육 태도를 종속변인인 걱정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재적 양육 태도와 상위인지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걱정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걱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상위인지는 독재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재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신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eta=.155, p<.05$),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독재적 양육 태도는 걱정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142, p<.05$).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상위인지가 걱정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616, p<.001$), 독재적 양육 태도가 걱정애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46, p=ns$). 그러므로 상위인지는 독재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애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Z값이 2.415로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표 8>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독재적 양육 태도→상위인지	.155*	.020	6.061*
2 독립→중속	독재적 양육 태도→걱정	.142*	.016	5.032*
3 독립→중속 매개→중속	독재적 양육 태도→걱정	.046(ns)	.386	78.221***
	상위인지→걱정	.616***		

*** $p<.001$, * $p<.05$

①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애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6 참고>를 살펴본 결과 독재적 양육 태도와 상위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자신감 부족, 그리고 걱정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독재적 양육 태도가 걱정애 미치는 영향애 대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재적 양육 태도와 인지적 자신감 부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eta=.208, p<.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독재적 양육 태도는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142, p<.05$).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이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04, p<.001$), 독재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79, p=ns$). 그러므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은 독재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Z 값이 2.819로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9>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독재적 양육 태도→인지적 자신감 부족	.208***	.039	11.103***
2 독립→중속	독재적 양육 태도→걱정	.142*	.016	5.032*
3 독립→중속 매개→중속	독재적 양육 태도→걱정	.079(ns)	.101	14.857***
	인지적 자신감 부족→걱정	.304***		

*** $p<.001$, * $p<.05$

②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6> 참고)를 살펴본 결과 독재적 양육 태도와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 걱정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독재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독재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재적 양육 태도와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eta=.193, p<.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독재적 양육 태도는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142, p<.05$).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746, p<.001$), 독재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02, p=ns$). 그러므로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독재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Z값이 3.025로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0>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사고통제의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독재적 양육 태도→부정적 신념	.193**	.033	9.438**
2 독립→종속	독재적 양육 태도→걱정	.142*	.016	5.032*
3 독립→종속 매개→종속	독재적 양육 태도→걱정 부정적 신념→걱정	-.002(ns) .746***	.552	152.483***

*** $p<.001$, ** $p<.01$, * $p<.05$

③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6> 참고)를 살펴본 결과 독재적 양육 태도와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걱정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독재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1>에서와 같이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독재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재적 양육 태도와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eta=.204, p<.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독재적 양육 태도는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142, p<.05$).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76, p<.001$), 독재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45, p=ns$). 그러므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독재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Z값이 3.052로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1> 독재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독재적 양육 태도→사고통제	.204***	.038	10.623***
2 독립→중속	독재적 양육 태도→걱정	.142*	.016	5.032*
3 독립→중속 매개→중속	독재적 양육 태도→걱정 사고통제→걱정	.045(ns) .476***	.231	37.993***

*** $p < .001$, * $p < .05$

2)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6 참고>를 살펴본 결과 허용적 양육 태도와 전체 상위인지, 걱정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허용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상위인지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2>에서와 같이 상위인지는 허용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허용적 양육 태도와 상위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eta = .155$, $p < .05$),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허용적 양육 태도는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42$, $p < .05$).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상위인지가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616$, $p < .001$), 허용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46$, $p = ns$). 그러므로 상위인지는 허용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의 결과

를 살펴보면 Z값이 -2.399로 0.0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표 12>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상위인지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허용적 양육 태도→상위인지	-.154*	.020	5.973*
2 독립→종속	허용적 양육 태도→걱정	-.176**	.027	7.795**
3 독립→종속 매개→종속	허용적 양육 태도→걱정 상위인지→걱정	-.081(ns) .611***	.390	79.673***

*** $p < .001$, ** $p < .01$, * $p < .05$

①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6 참고>를 살펴본 결과 허용적 양육 태도와 인지적 자신감 부족, 걱정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허용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의 매개효과를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인지적 자신감 부족은 허용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허용적 양육 태도와 인지적 자신감 부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eta = .208,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허용적 양육 태도는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42, p < .05$).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이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04, p < .001$), 허용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

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79$, $p=ns$). 그러므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은 허용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Z값이 -2.62로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3>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신감 부족의 매개 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허용적 양육 태도→인지적 자신감 부족	-.189**	.032	9.099**
2 독립→종속	허용적 양육 태도→걱정	-.176**	.027	7.795**
3 독립→종속 매개→종속	허용적 양육 태도→걱정 인지적 자신감 부족→걱정	-.119(ns) .298***	.109	16.066***

*** $p<.001$, ** $p<.01$

②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6 참고>를 살펴본 결과 허용적 양육 태도와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 걱정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허용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4>에서와 같이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허용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허용적 양육 태도와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eta = -.178, p < .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허용적 양육 태도는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76, p < .05$).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746, p < .001$), 허용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44, p = ns$). 그러므로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허용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Z값이 -2.802로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4>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허용적 양육 태도→부정적 신념	-.178**	.028	8.043**
2 독립→종속	허용적 양육 태도→걱정	-.176**	.027	7.795**
3 독립→종속 매개→종속	허용적 양육 태도→걱정 부정적 신념→걱정	-.044(ns) .737***	.554	153.650***

*** $p < .001$, ** $p < .01$

③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6 참고>를 살펴본 결과 허용적 양육 태도와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걱정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허용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5>에서와 같이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허용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허용적 양육 태도와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beta=.204, p<.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허용적 양육 태도는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142, p<.05$).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허용적 신념이 걱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76, p<.001$), 허용적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045, p=ns$). 그러므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허용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의 결과를 살펴보면 Z값이 -2.934로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5> 허용적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에서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허용적 양육 태도→사고통제	-.195**	.034	9.719**
2 독립→종속	허용적 양육 태도→걱정	-.176**	.027	7.795**
3 독립→종속 매개→종속	허용적 양육 태도→걱정 사고통제→걱정	-.084(ns) .469***	.236	39.020***

*** $p<.001$, ** $p<.01$

V. 논의

본 연구는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상위인지가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걱정을 설명하고자 실시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걱정이 많은 사람의 성격특성이나 걱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상위인지를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 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재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걱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며, 허용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걱정과 유의미한 부적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는 부모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과보호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걱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Parker, 1979; Leon & Leon, 1990; Gerlsma, 1993)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Parker(1979)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이 없으며 과보호가 높은 유형일 때, 자녀의 불안이 가장 높다고 제안하였다. Leon & Leon(1990)의 일반인과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환자의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 일반인에서는 허용적 유형의 부모가 많았던 반면, 공황장애와 범불안장애 환자들에게는 독재적 유형의 부모가 많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BI가 사용된 Gerlsma(1993) 연구에서는 대한 메타분석에서 불안장애 환자들이 유의미하게 독재적 유형의 부모 양육 태도를 보고했다. 부모의 낮은 애정과 높은 과보호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을 증가시키며, 높은 애정과 낮은 과보호가 청소년 자녀의 걱정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정서

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부모의 과보호 차원은 자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행동 이외에도 자녀를 마치 어린애처럼 취급하는 태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해서 그들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를 바라면서도 자녀를 지나치게 돌보려 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 나타난다. 즉 혼자 걷거나 옷을 입을 수 있을 때에도 안아주며 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며 또한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해주는 것이 쉽고 더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해줄수록, 또 부모가 원하는 특정한 유형의 모습을 자라도록 통제함에 따라, 자녀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결정내리고 실행해야하는 많은 신중한 임무에 대해 준비하고 연습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자녀가 성장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과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상시적인 개입과 보호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삶에 개입하여 간섭하고, 자녀가 원하는 목표가 아닌 부모가 원하는 상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요한다면, 그 자녀는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주체적인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직접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부모에 의해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기 삶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그들 스스로 세상에 대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걱정과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상위인지가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매개 분석 결과, 상위인지는 독재적, 허용적 양육 태

도와 걱정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애정 없이 과잉보호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면, 청소년 자녀는 역기능적인 상위인지를 형성하게 되어 높은 걱정 수준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상위인지와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Gallagher, Cartwright-Hatton,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Gallagher, Cartwright-Hatton(2008)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혹하고 처벌적인 훈육방식과 상위인지의 총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

또한,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서 상위인지가 완전매개 하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상위인지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자신감 부족,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들 모두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과보호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이 인지적 자신감이 부족하고, 걱정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높으며, 사고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여 걱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애정적이지 않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특정 상위인지 신념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통제적인 양육을 받는 청소년은 낮은 인지적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다"). 또한 애정 없이 통제적인 양육을 받는 청소년은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내가 아무리 그만두려고 해도, 나는 계속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정 없이 통제적인 양육을 받는 청소년은 사고통제에 대한 부적절한 신념을 갖게 될 수 있다("만약 내가 걱정 사고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것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와 같이 독재적 양육 태도는 역기능적인 상위인지 신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위인지의 하위요인 중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인지적 자의식은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상위인지와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부정적 신념이 걱정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인지적 자신감 부족,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인지적 자의식이 각각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그 설명변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위인지의 각 하위요인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설명 변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걱정을 설명하는 정도는 55.2%, 인지적 자신감 부족은 10.1%,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23.1%를 나타내며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인지적 자신감 (5배)과 사고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2배)보다 걱정을 매개하는데 더 큰 설명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걱정 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포함하여 걱정이나 스트레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걱정을 감소시키는 인지치료가 부모 양육 태도로 인한 걱정수준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상위인지가 부모 양육 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걱정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임상가는 걱정이 많은 청소년의 치료 장면에서 내담자의 상위인지에 대해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왜곡된 상위인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 자체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것이고 걱정을 하는 것이 미래의 사건에 대해 예방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쓸 것이다. 걱정에 대한 상위인지 모델을 제시한 Wells(1997)는 범불안 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걱정에 대한 생각 자체를 “놓아버리고(letting go)” 환자가 회피하고 있는 걱정 사고와 활동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걱정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생겨나는 병리적인 걱정에 대한 치료의 목적은 걱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자신 그 자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걱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교차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면접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해 자기보고 형식의 조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걱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위인지만을 다루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상위인지 이외에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불확실성에 대한 낮은 인내, 완벽주의 등 또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상관분석을 바탕으로 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걱정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 상위인지를 세분화하여 각 하위 요인 별 설명력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상위인지가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 양육 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걱정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밝혀진 상위인지, 특히 사고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 초점을 두어 치료할 경우 청소년의 병리적인 걱정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강은희, 정은의 (2003). 걱정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사고억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439-460.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3), 599-614.
- 김정원, 민명배 (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문제해결 방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 설순호 (2004). **걱정과 강박사고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통제방략**.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 송기현 (2005).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제 31권, 제 5호.
- 유성진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 및 인지적 특성: 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1999).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완벽주의와 우울**.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 이창수 (1998).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아동교육학회지**. 7(1), 202-217.
- 임정하 (2003). **한국적 양육 태도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조숙현 (2002). **걱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신념이 걱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Alonso, P., Menchon, J. M., Mataix-Cols, D., Pifarre, J., Urretavizcaya, M., Crespo, J., et al.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relation to symptom dimensions. *Psychiatry Research*, *127*, 267-278.
- Alonso, P. M., Menchon, J., Mataix-Cols, D., Pifarre, J., Urretavizcaya, M., Crespo, J. M., Jimenez, S., Vallejo, G., & Vallejo, J.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relation to symptom dimensions. *Psychiatry research*, *127(3)*. 267-278.
- Arnett, J. J. (1999). Adolescent storm and stress, reconsidered. *American Psychologist*, *54*, 317-326.
-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in Discipline Situ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3*, 137-14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rind, D. (1967). Childcare practices anteceding t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Martin I., Hoffman and Lois W. Hoffman(eds.), by Russell Sage foundation, 174-175.

- Bogels, S. M., & van Melick,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port, parent self-report, and partner report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attitudes and anxiety in children and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1583-1596.
- Borkovec, T. D., & Hazlett-Stevens, H., & Diaz, M. L. (1999). The role of positive about worry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its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6*, 126-138.
- Borkovec, T. D., Robinson, E, Pruzinsky, T., & DePree, J. A. (1983). Preliminary exploration of worry: Som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481-482.
- Brown, J. M., O'keefee, J., Sanders, S. H., & Baker, B. (1986).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cognition to stressful and painful situations. *Journal of Pediatricpsychology, 11*, 343-357.
- Brown, A. M. & Whiteside, S. P. (2008). Relations among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ttachment style, and worry in anxious children. *Anxiety Disorder, 22*, 263-272.
- Cartwright-Hatton, S., & Wells, A. (1997). Beliefs about worry and intrusion; the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3)*, 279-296.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 3-21.
- Cole, D. A., Peeke L. G., Martin, J. M, Truglio, R., & Seroczynska, D.

- (1998). A longitudinal look at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3), 451-460
- Davey, G. C. L.(1994). *Pathological worrying as exacerbated problem-solving*. In Davey, G. C. L., & Tallis, F. (Eds.), *Worrying: Perspective on theory, assesment and treatment*. Chichester. England: Wiley
- Davey, G. C. L., Tallis, F., & Capuzzo, N. (1996).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worrying. *Cognitive Tehrapy and Research*, *20*, 513-526.
- Davis, R. N., & Valentiner, D. P. (2000). Does meta-cognitive theory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pathological worry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513-526.
- Flavell, J. H. (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 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906-911.
- Fourinier, S., Freeston, M. H., Ladouceur, R., Dugas, M. J., & Guevin, M. C. (1996, August). *Excessive worry and anxiety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Quebec City, Quebec, Canada.
- Gallagher, B, Cartwright-Hatton, S.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factors and trait anxiety: Mediating role of cognitive errors and metacogni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 *22*, 722-733.

- Gamsa, A. (1990) Is emotional disturbance a precipitator or a consequence of chronic pain? *Pain* 42: 183-195.
- Gerlsma, C. (1993) *Parental Rearing Styles and Psychopathology: Memories of Parenting Revisited*.
- Gruner, K., Muris, P., & Merckelbach, H.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rearing behaviors and anxiety disorders symptomatology in normal children.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0, 27-35.
- Hunt, S., Wisocki, P., & Yanko, J. (2002). Worry and use of coping strategies among older and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434, 1-14
- Kagan, J. & Moss, H. A. (1962). *Birth to maturity: a study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381p.
- Leon C. A., & Leon A. (1990). Panic Disorder and Parental Bonding. *Psychiatric Annals* Sept. 1990;20 (9):503-508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 Wiley.
- Meyer, T. J., Miller, M. L., Metzger, R. L., & Borko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 487-495.
- Moore, P. S., Whaley, S., & Sigman, M. (2004).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mpacts of maternal and child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471-476.
- Muris, P., Meesters, C., Merckelbach, H., & Hulsenbeck, P. (2000). Worry in children is related to perceived parental rearing and

- attachmen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 487-497.
- Orton, G. L.(1982).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s worries. *Journal of Psychology*, 110, 153-162.
- Parker G. (1979a).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rait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in a non-clinical group. *ANZJ PSYCHIAT*; 13:260-264.
- Parker G., Tupling H.,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 J Med Psychol* 52: 1-10.
-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Rusio, A. M., Borkovec, T. D., & Ruscio, J. (2001). Ataxometric investigation of the latent structures of worr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413-422.
- Sears (1961). The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3.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Psychology*, 59. 226-235.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 65-88.
- Vasey, M. W. (1993). *Development and cognitions in childhood anxiety : The example of worry*. In T. H. Ollendick & R. J. Prinz(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5, 1-39.

New York : Plenum.

-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en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 183-201.
- Wells, A. (1994). Attention and the control of worry. In G. C. L.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Chichester, England: Wiley.
- Wells, A. (2004). A cognitive model of GAD. Metacognitions and pathological worry.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p. 164-186). New York: Guilford Press.
- Wells, A., & Butler, G. (199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David, M., & Fairburn, C. G. (Des.), *Science and practice of cognitive behaviour therapy* (pp. 156-17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lls, A., & Carter, K. (1999). Preliminary tests of cognitive model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535-594.
- Wells, A., & Carter, K. (2001). Further tests of a cognitive model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Metacognitions and worry in GAD, panic disorder, social phobia, depression, and nonpatients. *Behavior Therapy, 32*, 85-102.
- Wells, A., & Cartwright-Hatton, S. (2004). A short form of the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properties of the MCQ-30.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385-396.

Wells, A., & Papageorgiou, C. (1998). Relationship between worry,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meta-cognitive belief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899-913.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Meta-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nd Worry among Adolescents

Lee, Hyun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meta-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nd worry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328 students recruited from high schools in Metropolita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Meta-Cognitions Questionnaire-30: MCQ-30,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uthoritative parental rearing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worry and some subcategories of meta-cognition, lack of cognitive confidence, negative beliefs about uncontrollability of thoughts and danger, beliefs about need to control thoughts and total meta-cognition, while permissive parental rearing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worry and some subcategories of meta-cognition, lack of cognitive confidence, negative beliefs about uncontrollability of thoughts and danger, beliefs about need to control thoughts and total meta-cognition.

Second, the students who perceived their parents' rearing as authoritative showed more worrying, while the students who perceived their parents' rearing as permissive showed less worrying.

the students who perceived their parents' rearing as authoritative one showed more worrying, while ~

Third, the total meta-cognition and some subcategories of meta-cognition, lack of cognitive confidence, negative beliefs about uncontrollability of thoughts and danger, beliefs about need to control thoughts showed a complete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 permissive parental rearing and worry among adolescents.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beliefs about uncontrollability of thoughts and danger on worry was the highest among the other subcategories of meta-cognitions.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cieved Parental Rearing, Meta-cognition,
Worry, Mediating Effects

부 록

부록 1. 부모-자녀 유대 질문지

부록 2. 상위인지 질문지

부록 3. 펜실베니아 걱정 질문지

부모-자녀 유대 질문지

번호	문항	전혀 안그랬 다	안 그랬다	그랬다	아주 그랬다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1	2	3	4
2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1	2	3	4
3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주었다.	1	2	3	4
4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1	2	3	4
5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1	2	3	4
6	나에게 다정다감했다.	1	2	3	4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1	2	3	4
8	나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1	2	3	4
9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1	2	3	4
10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했다.	1	2	3	4
11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겼다.	1	2	3	4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었다.	1	2	3	4
13	나를 어린이에 취급 하였다.	1	2	3	4
14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1	2	3	4
15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1	2	3	4
16	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1	2	3	4
17	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주었다.	1	2	3	4
18	나와 가끔 이야기 하였다.	1	2	3	4
19	어머니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1	2	3	4
20	어머니는 자신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여겼다.	1	2	3	4
21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었다.	1	2	3	4
22	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 주었다.	1	2	3	4

23	나를 과잉보호 하였다.	1	2	3	4
24	나를 칭찬해 주었다.	1	2	3	4
25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	1	2	3	4

상위인지 질문지

번호	문항	동의 안함	약간 동의함	상당히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걱정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피하게 해준다.	1	2	3	4
2	걱정하는 것은 나에게 위험하다.	1	2	3	4
3	나는 내 생각들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1	2	3	4
4	나는 걱정 때문에 넋더리가 난다.	1	2	3	4
5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1	2	3	4
6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걱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7	걱정거리를 통제하지 못해서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다.	1	2	3	4
8	나는 단어나 이름들에 대한 나의 기억을 거의 확신하지 못한다.	1	2	3	4
9	걱정은 내 마음의 생각들이 정리되도록 도와준다.	1	2	3	4
10	나는 내 걱정거리들을 무시할 수 없다.	1	2	3	4
11	나는 내 생각들을 감시한다.	1	2	3	4
12	나는 항상 내 생각들을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	1	2	3	4
13	내 기억은 때때로 정확하지 못할 수 있다.	1	2	3	4
14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나는 미칠 지경이다.	1	2	3	4
15	나는 항상 내 생각들을 인식하고 있다.	1	2	3	4

16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	1	2	3	4
17	나는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18	걱정을 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19	내가 내 생각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이다.	1	2	3	4
20	내 걱정거리는 내가 아무리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계속 지속된다.	1	2	3	4
21	걱정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1	2	3	4
22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걱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23	어떤 사고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처벌받을 것이다.	1	2	3	4
24	걱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1	2	3	4
25	나는 장소에 대한 나의 기억력을 거의 확신하지 못한다.	1	2	3	4
26	어떤 사고들은 생각하는 것이 나쁜 일이다.	1	2	3	4
27	나는 내 기억을 신뢰하지 않는다.	1	2	3	4
28	내 생각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나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	1	2	3	4
29	나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검토한다.	1	2	3	4
30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나의 기억을 거의 확신하지 못한다.	1	2	3	4

펜실베니아 걱정 증상 질문지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웬만 큼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일을 다 끝낼 만큼 시간이 충분치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2	걱정이 나를 누른다.	1	2	3	4	5
3	나는 그리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1	2	3	4	5
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1	2	3	4	5
5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1	2	3	4	5
6	뭔가에 압박을 받으면, 상당히 걱정하게 된다.	1	2	3	4	5
7	나는 늘 뭔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1	2	3	4	5
8	걱정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1	2	3	4	5
9	무슨 일 하나를 끝내면 곧바로 해야 할 다른 일에 대한 걱정이 시작된다.	1	2	3	4	5
10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11	걱정거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지금까지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1	2	3	4	5
13	얼마 전에도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1	2	3	4	5
14	일단 걱정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다.	1	2	3	4	5
15	나는 내내 걱정하고 지낸다.	1	2	3	4	5
16	나는 어떤 일을 다 끝마칠 때까지는 그 일에 대해 계속 걱정한다.	1	2	3	4	5